

# 두레종합건설 본사사옥 설계

Architectural and Interior Design of Doorae Engineering & Construction Head Office

박영호\* / Park, Young-Ho

## Abstract

As regards of designing, I chose a simple wall design of repeating pattern of vertical windows, rather than making the building as a glamorous object. This kind of approach was intended to pursue strong image of construction company, interchanging and communicating with its confused surrounding. Therefore, I boldly removed parts that I considered needless from the facade, and used simple and easy words clearly implying the organization. Lobby is the face of the building, but since the space is deep and narrow and the reality of lease should be considered, there was limit to give original image to the lobby. Instead, high ceiling is the biggest feature of this space. Doorae Engineering-Construction Corp. is young and energetic company. I wanted to highlight the young and energetic image of the company by crossing to oblique piece of boards. This doesn't just has a simple function as ceiling, but also work as a major subject in the space. In addition of this powerful space of oblique lines, indirect lighting is used to emphasize the character of territory, continuity and deepness of the space. Character of territory that divides main and supplementary function and main and supplementary moving line is expressed by flow of dimension, and continuity and deepness of space is emphasized by indirect lighting flowing linearly through the crack between the ceiling and the wall.

키워드 : 사옥설계, 로비설계, 역동성

## 1. 서론

### 1.1. 설계 개요

- 대지위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8-2
- 대지면적 : 1,199.60 m<sup>2</sup>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건축면적 : 978.56 m<sup>2</sup>
- 연 면 적 : 3,594.44 m<sup>2</sup>
- 건 폐 율 : 81.57 %
- 외부마감 : 화강석버너구이, 라임스톤, 알루미늄쉬트, 메탈판넬
- 내부마감 : Green Marble, C-Black, 마천석, V.P도장

### 1.2. 설계 개념

“과편적인 거리의 풍경 속에서 잘 생긴 건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이 이 건물의 시작이다. 각양각색의 간판과 창문들 그리고 거미줄과 같은 전선망들이 만들어내는 주변의 무게감을 인정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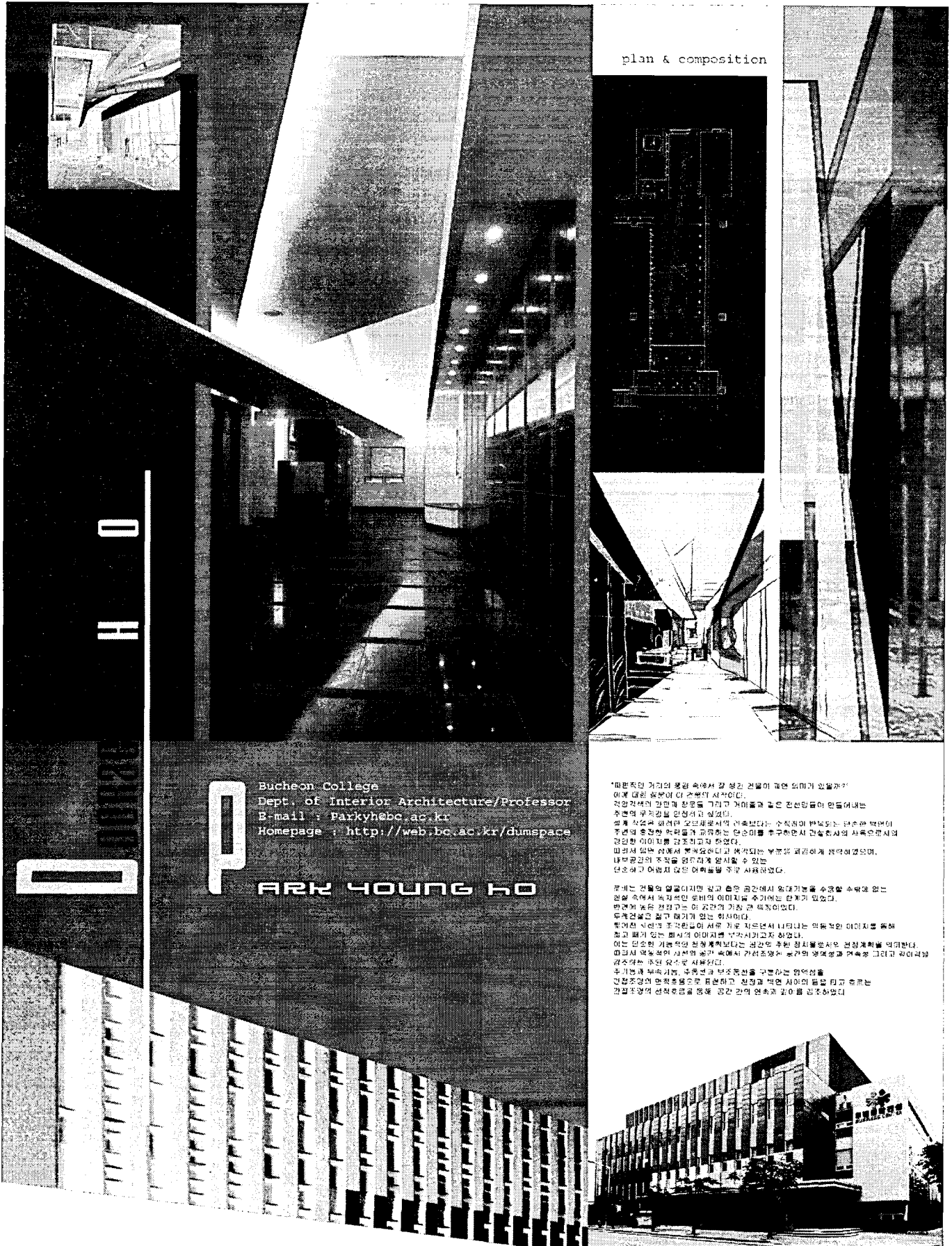
설계 작업은 화려한 오브제로서의 건축보다는 수직창이 반복

되는 단순한 벽면 디자인을 선택하였다. 혼잡한 주변의 맥락들과 교류하면서 강인한 건설회사의 이미지를 단순미로 풀어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입면 상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였으며, 내부공간의 조직을 명료하게 암시할 수 있는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어휘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로비는 건물의 얼굴이지만 깊고 좁은 공간에서 임대기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독자적인 로비의 이미지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높은 천정고는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두레종합건설은 젊고 패기가 있는 회사이다. 찢어진 사선의 조각판들이 서로 가로 지르면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젊고 패기 있는 회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인 천정계획보다는 공간의 주된 장치물로서의 천정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동적인 사선의 공간속에서 간접조명은 공간의 영역성과 연속성 그리고 깊이감을 강조하는 주된 요소로 사용된다. 주기능과 부속기능, 주동선과 보조동선을 구분하는 영역성을 간접조명의 면적흐름으로 표현하고 천정과 벽면 사이의 틈을 타고 흐르는 간접조명의 선적흐름을 통해 공간 간의 연속과 깊이를 강조하였다.

\* 정희원, 부천대학 실내건축과 조교수

## 2. 설계 프로세스



plan & composition

Bucheon College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Professor  
 E-mail : Parkyh@bc.ac.kr  
 Homepage : http://web.bc.ac.kr/dumospace

P

ARK YOUNG HO

"미분족단 거리의 풍경 속에서 잘 생긴 건물이 과연 있마가 있을까?"  
 이 문장을 출발이 다 출발이 시작이다.  
 건축가적인 고민과 상상들 가리구 거미줄과 같은 전선망들이 만들어내는  
 주변의 무지개를 만장하로 삼았다.  
 영계 건축과 관련된 모든것으로서 건축보다는 수직적인 반대로는 단순한 벽면의  
 주변의 풍경화 하리들과 동일한 인공미를 추구하면서 건축가로서의 사색으로서의  
 건물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피하게 생각하였는데,  
 내외공간의 주조를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거미줄을 무궁 사용하였다.

부제는 건물에 어울리지만 있고 공간에서 열대기종을 수놓을 수밖에 없고  
 건물 속에서 독자적인 의미의 이미지를 주기에만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높은 처장고는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열대기종을 끌고 해가게 있는 특징이다.  
 따라서 이런 주제를 도입하여 세로 치우면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높고 넓게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법적인 진행계획보다는 공간의 주된 장치물로서의 결정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동적인 사색의 공간 속에서 건축가적인 공간의 영감을 얻어내고 그리기 작업이  
 가능하게 추진 되도록 하였다.  
 주 기능에 부응하며, 사용자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편의성을  
 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해 표현하고, 현장과 작업 사이의 통합되고 유류는  
 건설주와의 건축비용을 통해 공간 안의 연속과 깊이를 입수하였다